

# ESCO협회 이전 현판식

협회 위상 강화 계기로 삼아 ESCO사업 발전 도모



1999년에 발족한 ESCO협회가 협회명의로 사무실을 갖게 됐다.

중구 태평로 2가에서 역삼동으로 사무실을 이전(6월 1일)한 ESCO협회는 지난 7월 12일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이 날 현판식에는 유제인 협회장(이앤이시스템)과 최석곤 고문(삼성에버랜드)을 비롯해 에

너지관리공단 이원갑 자금지원실장, 이범용 부회장(에너지솔루션즈), 김석철 감사(한국하니웰), 심규정 이사(화인), 유규상 이사(벽산건설)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제인 협회장은 “1999년도에 출범한 협회가 드디어 협회 명의로 사무실을 갖게되어 기쁘다”며 “이번 현판식은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 기능 확대와 함께 상호협력을 통해 ESCO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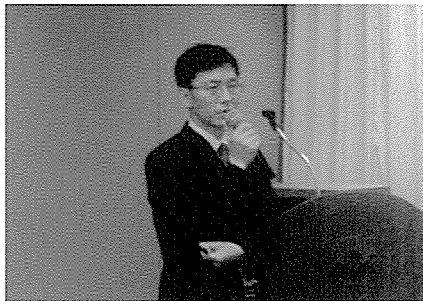
## ‘CDM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실시



ESCO협회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활성화하고 CDM사업에서 ESC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CDM사업계획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과 유제인 ESCO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ESCO관련 업계 100여명이 참석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ESCO업계의 CDM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날 교육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정만 팀장의 국내 ESCO사업 현황발표에 이어 에너지관리공단 하경애 대리의 ‘CDM과 ESCO 사업’, (주)유피씨코퍼레이션 서동균 대표의 ‘CDM사업 사례’ 순으로 이뤄졌다.



유제인 ESCO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 환경 속에서 ESCO들도 새로운 아이템 개발 및 사업 분야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이다”며 “이번 교육의 목적이 ESCO들을 통한 CDM사업 활성화에 있는 만큼 CDM사업이 무엇이고 ESCO에게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